

사건기사의 단상

뿌리는 농민 ... 주워담는 경찰 ...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지난달 30일 한미 FTA반대 광주·전남은 동본부 주최로 FTA 협상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광주 시가지에서 열린 날이었습니다. 시위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경찰이 뒷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1시간여동안 열린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뿌린 벼를 담고 있다. 평생 매달려온 농사를 내버려둔 채 낯설기만한 도심으로 나와 자식 가꾸듯 정성 들인 농작물을 뿌리는 농민들 심정, 오죽하겠습니까. 주워 담는 경찰도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 안타까움은 농사와 관계가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해마다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 영농비도 못 건지는 농사, 일찍 포기하고 진작 농촌을 뜨지 못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농민들입니다. FTA까지 타결돼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은 그들에게 정부에 대한 배신감만 가득하겠죠.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할때 마음 아픕니다. /내평기자 mjna@kwangju.co.kr

뉴스퀴즈

58.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이몽구(內蒙古) 등에서 발원한 이 현상으로 지난 1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기상청이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특보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2년 4월10일 이후 처음입니다.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일컫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① 황사 ② 온난화 ③ 엘니뇨 ④ 라니냐

참어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I love MY student

그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김영신

월산초등학교 보건교사

광주의 대학병원 근무하다 어릴 적 꿈이 학교선생님이어서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J군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20년 가까이 됐다.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 광주에서도 몇 시간을 몇 개 군을 거쳐 J군 교육청에 도착해 임지를 확인하고 해당학교로 갔다. J군은 끝도 없이 버스로 가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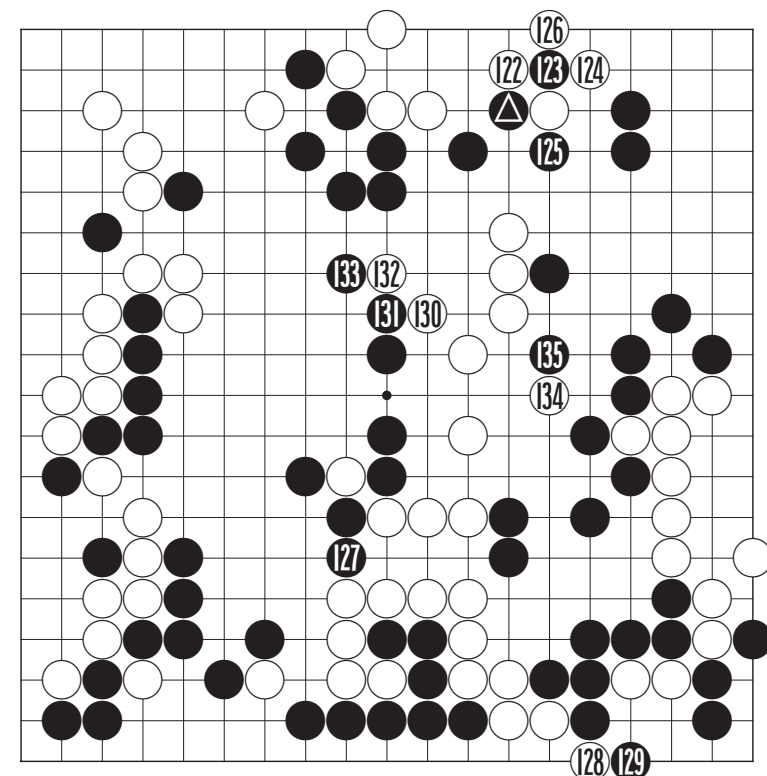
그아말로 불설고 낮 설은 곳이었다. 하얀 벽 보건실과 음용수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지런을 떨어뜨렸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하루는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보건선생님은 참 부지런하시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내 보건교사 20년 경력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은 초임학교에서 근무할 때다. 아들 3형제가 우리 학교에 다녔다. 형은 5학년이고 얼굴도 잘 생겼었다. 동생은 3학년이었는데 얼굴이나 공부면에서 형보다는 못하고 엄마도 형만 감췄지 동생에게는 무관심하고 약간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다. 동생에게 '뭔가 불편한 것이 있구나' 생각하며 아이의 생활을 유심히 바라보니 힘도 없고 입술도 약간 파랬다. 신체검사 후 교의가 3학년 아들의 동생을 진찰해 보고 나에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라고 했다. 아이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엄마를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엄마를 만나 물어보니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다고 했으나 심하지 않으니 그냥 살아가도 될 것 같더라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의 집은 그 당시 식육점을 하고 있어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아들을 큰 병원에 데려가 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나는 그때부터 수술하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아이를 그대로 방치 하느냐 만약 진찰을 받아 수술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때 그냥 놔둬도 되지 않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다. 그때 인턴 길병원이란 곳에서 도움을 주었던 같다. 아이는 인천까지 가서 진찰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쉽게 끝나고 가슴엔 흉골을 갈랐던 흉터가 크게 남았다. 그 흉터를 만져보니 수술 받느라 고생 많이 했구나 위로를 해주었다. 길가에서 만난 엄마도 보건선생님 덕분에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무료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얼마간 혜택을 주고 아이는 수술을 받아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어 보기에 참 좋았다. 내 기억대로라면 그 아이 30이 되어서야 나이다. 20여년 보건교사 생활을 반추해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음 2월 16일 丁卯)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7기 SK가스배 프로10결전 白 이재웅 5단 黑 김수용 초단

흑 123로 끊어간 수가 호수. 그리고 나서 123으로 끊어간 수가 필살의 의지를 드러낸 연타로 중앙의 백 대마를 잡고야 말겠다는 김수용 초단의 독한 결정을 확신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많은 대국에서 경험한 것은 '대마불사'라는 뼈저린 깨달음이다. 이재웅 5단도 대마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대마가 쉽게 죽으리라' 하는 믿음도 깔려 있을 것이다. 흑 127이 선수 한집을 없애는 꼭

필요한 수. 이제는 정말로 백 대마의 위기가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제까지 실리를 내주지 않으며 버티던 이재웅 5단도 이 장면에서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일단 130으로 한집을 확신했고 나서 다시 134로 두어 유일하게 집을 낼 여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이때 흑 135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노타임으로 떨어진다. 김수용 초단은 흑 135로 잡으러 갈 시점에서 이미 134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으로서의 대위기 백 대마는 과연 살 수 있을 것인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원성진, 신인왕전 결승 진출

원성진 7단이 2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7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준결승전에서 윤준상 6단을 203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원 7단은 오는 12일 백홍석 5단과 신인왕전 패권을 다툰다. 지난 16기 대회에서도 결승에 진출했던 원성진 7단은 이번까지 세번째 신인왕전 결승 무대에 오른다. 이 대회는 연령과 무관하게 프로 입단 10년 미만 기사들만 출전하는 제한기전이며 예선, 본선, 결승 등의 제한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3회이다. 우승상금은 2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874> 오하오유 니혼고 <874> 니하오 쥬구워 <65> 한자 이야기 <491>

English section: 'It takes one to know one' with dialogue between A and B, and a definition of 'busybody'.

Japanese section: 'ちょっとやばいかも' with dialogue and a definition of '후회' (後悔).

Chinese section: '你以前来过吗?' with dialogue and a list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ir meanings.

Chinese section: '秋波 (추파)' with a definition and a quote from a poem.